

광주시민 400명 '비엔날레 홍보 서포터즈' 뒀다

운수·외식·숙박·관광·미술계 종사자 등 구성 입소문·홍보물 부착 등 생활 속 홍보대사 활동

광주시가 오는 9월7일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앞두고 시민들로 구성된 홍보 서포터즈를 출범하는 등 광주비엔날레 붐 조성에 나섰다.

21일 광주시와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광주비엔날레 개막 50일을 앞둔 지난 19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인 강기정 시장, 박양우 대표이사, 홍보 서포터즈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광주비엔날레 홍보서포터즈는 운수업, 외식업, 숙박업, 관광업, 미술계 종사자 등 외지인 접촉이 많은 광주시민 400여명으로 구성됐다.

홍보서포터즈는 30주년을 맞는 광주

비엔날레가 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비엔날레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이들은 광주비엔날레 관람 독려 입소문(바이럴) 홍보, 고객 친절 응대 캠페인, 포스터·스티커 등 홍보물 부착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날 발대식은 전남대학교 흑인음악 동아리 '숨'의 '뱀'으로 듣는 광주비엔날레' 공연을 시작으로 홍보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광주비엔날레 퍼즐포스터 만들기, 홍보서포터즈 다짐, 차량 홍보 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운수·숙박업 등 분야별 대표 5명에게 홍보서포터즈 위촉장을 수여하며, 서포터즈 참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19일 오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서포터즈 등 관계자들이 손뼉맞을 들고 성공 개회를 다짐하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 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

탕으로, 민중미술의 힘으로 시작했다"면서 "인간의 영혼을 풍부하게 만드는,

세계 3대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는 것에 엄청난 자

부심을 갖고 비엔날레를 찾는 이들을 환대해 달라"고 언급했다.

홍보 서포터즈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퍼즐을 함께 맞춰나가는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하나 돼 힘을 합치면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울림'은 오는 9월7일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 명성의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이 판소리를 매개로 소리와 공간이 함께하는 오페라적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계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해 비엔날레전시관은 물론 광주의 예술명소로 손꼽히는 양림동 일대 등 9곳을 외부 전시장으로 꾸며 관객과 작가, 기획자가 함께 접목하고 교감하는 전시로 만들 계획이다. 또 파빌리온 전시는 31개 국가 문화기관이 참여, 각국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박성강기자

두바이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매장 오픈

중동 최대 한인마켓 천사고메에서 쌀·김 등 21개 품목 판매

전남도는 21일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지난 15일(현지시간) 남도 농수산물 상설매장을 개장, 남도 명품 브랜드 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사고메는 두바이에 3개 지점, 아부다비에 1개 지점을 갖춘 중동 최대 규모의 한인마켓이다. 이곳 상설 매장에서 곡식 브랜드 쌀인 잠자리가 노닐던

쌀과 완도의 새우표김을 포함해 여수의 마른 멸치까지 총 21개 남도 제품을 판매한다.

이번 천사고메 두바이점 개장은 중동지역 최초로 이뤄진 상설매장이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UAE와 배달 플랫폼 인스타그램, 탈라브 등에도 제품 등록과 판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중동의 문턱을 두드렸던

농수산물 식품은 많았지만 '할랄 푸드(이슬람 허용 식품)' 통관 장벽을 넘지 못해 안정적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전남 두바이 상설매장 개장으로 중동의 까다로운 제품 성분 기준에 맞춘 남도 제품을 선보이게 돼 활발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게 됐다.

개장식 행사에 참석한 전용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두바이 소장은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들이 중동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에 소개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전남 제품이 중동을 넘

어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철 천사고메 회장은 "우수한 전남 제품이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남의 농수산물식품이 중동의 단골 메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6일 말레이시아 페타링자야에도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개장, 총 13개국 32개소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 판매장을 지역별 오프라인 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시원기자

'월요대화' 시민·정책 가교 자리매김

광주시, 2년간 38차례 1천100여명 시민 만나 청년·문화·경제 등 정책 방향 결정·갈등 해결

민선 8기 광주시의 대화 창구인 '월요대화'가 시민과 정책을 잇는 가교로 자리잡았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2년간 38차례, 시민 1천100여 명을 만났다. 월요대화는 시민과 함께 광주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 신설·조례 제정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2022년 9월 월요대화의 첫 시작은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후 청년 부채·구직활동지원 등 청년정책, 광주 기후행동, 관광·축제 활성화, 이스포츠 육성 등 다양한 주제로 열렸으며, 열린 토론의 장이자 시장 방향 설정을 위한 해법 모색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선 8기 대표 성과로 손꼽히는 '광주다음 통합돌봄'도 시민, 전문가, 전문가(TF) 위원 등이 참여한 7번째 월요대화에서 논의됐다.

'이주민·선주민 상생, 지방소멸 극복' 대안 될 수 있나'를 주제로 열린 27번째

월요대화와 '반려동물 행복도시 조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28번째 월요대화는 시민의 정책 수요를 기반으로 전남부서인 외국인주민과와 반려동물복지팀을 신설하는 계기가 됐다.

택시요금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월요대화에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결정에 반영됐고, 30번째 월요대화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광주시 스포츠클럽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 복합쇼핑몰 개발 방향 등 월요대화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 다수가 정책에 반영됐다.

강기정 시장은 "정책 방향이 고민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시민과의 대화에서 답을 찾았다"면서 "민심의 뜻을 입혀 시민의 삶을 꿰뚫어 아만 좋은 정책인 만큼 광주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강기자

도,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박차

산업부 사업 선정...160억원 들여 지하배관 안전진단 추진

전남도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에 선정, 여수국가산단의 지하 및 지상 배관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산단 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967년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은

50년 이상 경과, 노후가 진행 중이다. 지하 시설물 데이터와 실제 구역이 불일치한 경우가 다소 확인돼 인근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 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전남도는 여수국가산단의 화재, 가스 누출,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

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60억원(국비 105억원)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산단 노후 지하배관 안전진단 및 데이터베이스(DB) 오류 개선 ▲지하 및 지상 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산단 내 구조물 데이터베이스 최신화 ▲시뮬레이션 기반 사고위험 감지 시스템 개발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지하·지상 배

관 사고 위험 예측 및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지고, 현장 시설물과 데이터가 일치돼 실시간 정보 공유로 굴착공사 등에 따른 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영호 전라산업국장은 "조성 50년 이상 된 여수국가산단은 노후 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받는다.
- 3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차만손 등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전남도,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문화연구소,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손해보험협회